

2023
03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CONTENTS

01 COVER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02 KAMT NEWS

03
임상병리사직군 업권수호

08 KAMT news

61차 정기대의원총회

05 KAMT NEWS

간호법제정 관련 총결기대회

제482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We pioneer breakthroughs in healthcare. For everyone. Everywhere. Siemens Healthineers Ltd.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판법인 씨젠의료재단
- 감염병 체외진단 퍼스트무버 (주)코젠바이오텍
-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총일화학

발행인 장인호 / 편집인 김 철
 편집위원 김대중, 장성호, 이지혜
 기 자 최재석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 **질 높은 임상병리사 배출 위한 '현장실습' 법제화 이뤄낼 것**
 - **장인호 협회장 "간호법" 저지 끝까지 투쟁해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하겠다."**
 - **홍창식 총회의장 "3년만에 대면 총회 감회가 새로워... 올바른 협회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아끼지 말아주시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는 2월 25일(토) 오후 2시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지하에 위치한 김종기 홀에서 2023년도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협회의 지난해 주요 사업실적 및 사업결산을 되돌아보고 2022년 임상병리사의 사회적 위치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지난 해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 임상병리사 및 협회 위상강화 2) 회원업권수호 3) 학술 및 교육 역량 강화 4) 협회 운영개선 및 조직 역량강화 5) 회원 단합 및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협회는 2022년 대한상공회의소와 포브스 코리아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2022년 보건 의료부문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코리아는 신속, 정확한 진단검사 시행의 주역인 임상병리사에 대한 권익증진, 감염병유입에 대한 대응노하우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했으며,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보여준 헌신과 봉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공헌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 회관의 재무적 가치를 높이고, 협회와 임상병리사회원간의 소통을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협회관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60년사'를 발간해 보건 의료기사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

또한 협회는 회원들의 업권을 수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현재 보건 의료계의 뜨거운 화제인 간호법제정 저지를 위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하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다수의 대학교, 진단검사관련 업체들과의 협력관계를 개선해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협약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중소병의원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중소병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임상병리사협회의 목소리를 냈으며, 중소병의원 회원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며 적극적으로 회원들과 소통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2년에는 IFBLS2022를 개최해 전 세계 30여개국의 11,000여명의 임상병리사를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에 집결시켰으며, 이들을 위해 높은 수준의 학술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IFBLS 조직위원회를 구성 매주 잠을 줄여가며 학술대회 운영에 온 힘을 쏟았다. 또한 시대에 맞는 수준 높은 임상병리사 배출을 위해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을 출범, 3개대학교(경운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혜전대학교)에 대해 교육평가인증시범평가를 진행해 학교의 비전, 운영체계, 교육과정, 교수, 학생, 교육환경과 시설, 교육성과 핵심역량 평가를 진행했다. (뒷면에서 계속)



(2면 이어서) 2023년은 전문가로 인정받는 임상병리사, 회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협회를 슬로건으로 임상병리사협회에 대한 권익향상과 회원들과의 소통증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질 높은 의료기사배출을 위한 '현장실습' 법제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고, 정회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강화해 협회차원의 복지증진을 꾀할 예정이다.

장인호 협회장은 "2022년에는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많이 뛰어 다녔다. 대한보건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맡아 5개 법안을 본 회의로 올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회원들의 업무범위를 침범하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며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할 협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홍창식 총회장은 개회선언과 개회사를 통해 "지난 3년간 화상으로 진행됐으나 드디어 코로나가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대면으로 총회를 진행할 수 있게됐다" 며 "대의원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협회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뤄낸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대의원총회는 2022년의 사업실적과 2023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협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의원여러분들의 제언을 아끼지말아달라" 고 말하며 대의원총회를 시작했다.

성명서

법에 명시된 응급의료종사자 역할을 정확히 할 수 있게 응급실에 '면허 소지자'인 임상병리사 상주를 의무화하라!!

지난 3월 2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을 제출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 현장,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응급구조사가 병원 응급실 등에서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이 추가됐다. 그런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임상병리사의 업권을 명백히 침탈한다. 임상병리사는 정규 대학 교과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사다. 반면 응급구조사는 이런 면허가 없는 자격증 소지자다. 만약 이번 업무 범위 확대가 결정되면 결국 불필요한 의료비용 지출 증가의 피해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도 기여할 수 없는 내용이다.

현재 다수 응급실 내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응급실 내 응급처치에 투입될 의료 인력을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의료인, 의료기사를 포함한 직능별 역할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응급실 인력 부족 해법으로 비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결정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료기관 내 응급실에서 심전도 측정 및 채혈을 실시할 임상병리사가 부족한 경우 임상병리사를 충원하도록 조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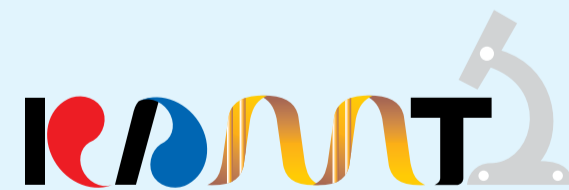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는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가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에는 위법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정안은 현행 법체제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체제를 무너뜨린다. 응급환자에 대한 각종 검사가 신속 정확하게 진행돼 진단 치료 정확도를 높이려면 임상병리사가 응급실에 24시간 상주하게 하는 취지의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임상병리사는 응급구조사에게 이미 업권을 충분히 양보했음을 밝힌다.

2019년 2월 13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마련한 '응급의료 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 공청회'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구급차와 의료기관 밖 응급상황으로 제한한다면 12 유도 심전도 측정을 응급구조사 업무로 허용해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의료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신속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도 의료기관 내에서까지 임상병리사의 업권을 침탈하려는 행위는 정부가 법을 어기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에 본 협회는 이 분야 실무전문가로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셋째, 본 협회는 이번 조정안 철폐를 위해 법적 대응과 시위 등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심전도 검사 등 의료행위를 비전문가인 응급구조사에게 맡기는 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위다. 비전문가인 응급구조사가 심전도를 검사하면 판독 결과의 정확도는 떨어질 게 분명 하며, 이는 결국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장인호 회장을 비롯한 7만 2000여 임상병리사는 이번 조정안이 무효가 될 때까지 법적 대응은 물론 시위 등 총력투쟁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일동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조정(안) 대응 협회대응보도자료

- 1) 임상병리사 "손가락 내주니 팔 달라는 격"...응급구조사와 충돌 <머니투데이>
- 2) 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놓고 충돌 <청년 의사>
#응급구조사 업무에 심전도 검사 포함... '업무 중첩' 논란
#임상병리사협회 "의료기관에서는 임상병리사가 하는 일"
- 3) 응급실 상주 의무화 해달라' 임상병리사협회 낸 성명서 발표보니 <머니투데이>
- 4) 응급구조사에 국민 생명 못 맡긴다' 임상병리사 '총력투쟁' 선포 <세이프타임즈>
- 5) 복지부 찾아간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병원내 심전도 측정 안돼" <머니투데이>
- 6) 임상병리사협회,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반발 <청년 의사>
#응급구조사에 심전도 검사, 채혈 시키는 병원 고소
- 7) "응급실서 심전도 측정 우리 일...주호영 국회 원내대표 만나 힘 얻었다" <머니투데이>



총일화학은 고객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과 진단의학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합니다.

- ▶ 중대형병원의 중앙검사실 자동화
- ▶ 중소병원의 검사실에 맞춤형 솔루션 제공
- ▶ 최고의 전문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최적의 서비스
- ▶ 40여년간 진단의료기기 시장과 함께 성장해온 경험과 노하우



- ▶ CHEMISTRY
AU5800, DXC700AU
- ▶ IMMUNOASSAY
DX1800, ACCESS2
- ▶ HEMATOLOGY
DXH500 Series, DXH-900, DXH AUTOMATION
- ▶ SERUM PROTEIN
IMAGE 800
- ▶ HEMOSTASIS
ACL TOP / 350CTS, 550CTS, 750CTS, 750BASIC, 750LAS
HEMOCCELL AUTOMATION, ACL ELITE PRO
- ▶ MICROBIOLOGY
BACTEC FX, MGIT320, MGIT960
- ▶ MOLECULAR DIAGNOSTICS
T2BIOSYSTEMS, OPTOLANE
- ▶ LAB AUTOMATIONSYSTEM
- ▶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 ▶ SPECIMEN COLLECTION
BD Vacutainer Tube, ABG Syringe



A.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 6길 24
T. 02-2294-6411 H. www.choongil.com

2022년도 사업실적



임상병리사 및 협회 위상 강화

1)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보건의료부문 사회공헌대상 수상

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포브스가 수여하는 2022년 보건의료부문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진행해준 임상병리사회원들의 권익증진, 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 노하우 구축, 코로나19 검체채취 교육, 방역현장에서의 검체채취와 PCR 검사, 신속항원 검사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으며, 장인호 협회장은 "회원들의 노력과 희생이 평가받은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 협회관 재건축 추진

협회는 25년간 협회관으로 사용된 건물을 허물고 점차 커지는 협회의 규모에 알맞은 회관을 재건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 진행 중인 새 협회관은 지상 6층, 지하 2층규모로, 회의실, 사무실과 중회의실, 대강당을 갖춰 각종 회의, 행사를 규모에 맞게 치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역사관과 촬영 스튜디오, 임대층을 구비해 협회관의 재무적 가치를 높이고 최신 시설을 갖춘 회의실등의 공간이 확보되면 회관 개발을 통한 시도분과회,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협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활동

대한의료기사단체연합회는 보건의료분야 8개 단체가 소속된 단체로 수준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사의 전문성 강화와 발전,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결성되었다 장인호 협회장은 2022년 한 해 동안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총회장직을 맡아 여러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의료기사 등의 업권수호를 위해 활약하며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원 업권 수호

1) 간호법 제정 반대

협회는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을 위협하는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속해 함께 간호법 제정에 대응하고 있다. 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총회의, 기획위원회, 정기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간호법 제정 철회를 위한 국회 앞 1인시위, 화요집회, 총궐기대회에 참여하며 투쟁하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예의주시하며 임상병리사 회원들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려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업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중소병의원 회원 업권수호 활동

협회는 2021년 중소병의원부를 신설해 중소병의원 회원들의 업권을 수호하기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중소병의원부는 국회에서 열린 중소병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했으며 또한 지속적인 실무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중소병의원 대표위원을 선정, 중소병의원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4주기 검진기관평가분석을 통한 진단검사분야의 현실', '1,2차 중소병의원 실태조사', '임금가이드라인 &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정책'등 중소병의원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학술 및 교육역량 강화

1)IFBLS2022 개최

협회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35회 세계임상병리사연맹 총회 및 제60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IFBLS2022는 전 세계의 검사 및 시약등 진단검사의학에 관한 최신 식견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이기에 협회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밤낮없이 학술행사를 준비했으며 전 세계 30여 개국 11,000명의 임상병리사 회원들을 유치해 성공적인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2) 대한임상검사과학회 독립

대한임상검사과학회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전문학회로 1978년 창립해 1995년 학술지 개칭, 2004년 대한임상검사학회 개칭 및 한국연구재단 KCI등재 학술지 신청 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22년 2월 협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대한임상검사과학회가 독립했다. 대한임상검사과학회는 2022년 발대식을 시작으로 사업을 구상중이며 2023년 4월 춘계워크숍 개최를 계획 중에 있다.

3)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시범평가 진행

한국 임상병리교육평가원은 대학에서 시행 중인 임상병리학과 교육 시스템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고, 국내외 보건 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임상병리사를 육성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으로, 시범평가를 통한 인증기준 및 평가판단의 고도화, 인증평가·핵심 역량 지표검토 연구, 학제통합을 위한 공동교과 도출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회원 단합 및 홍보활동

1) 사회공헌활동

협회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와 함께 '함께라면 더 따뜻한 겨울' 활동을 통해 성북구 불우이웃을 위한 대민사업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성북구 주민센터를 통해 성북구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지원 예정이다. 지난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이후 유관단체로부터 받은 쌀 화환과 함께 추가로 구매한 쌀을 성북구 중앙동에 거주중인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기부했다. 협회는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방역키트등을 기부하는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 협회 유튜브 '캠프특공대' 개설

협회는 대중들에게 임상병리사를 홍보하고,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 공유 및 소통의 창구를 만들고자 유튜브채널 '캠프특공대'를 개설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4편의 동영상 제작했으며, 협회 임원, 회원들이 출연했다. 2023년에도 임상병리사 직업군을 홍보하기 위해 더욱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협회는 밝혔다.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포상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순번	성명	근무처	소속
1	조대현	순천향대학교부속 구미병원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
2	구본경	삼성서울병원	임상혈액검사학회
3	백운철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조직세포검사학회
4	황원주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시임상병리사회
5	김홍주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자랑스러운 임상병리사상

▷ 자문위원 안용호

최우수지회 표창

▷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우수지회 표창

▷ 충청북도 임상병리사회
▷ 전라남도 임상병리사회

최우수분과학회 표창

▷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우수분과학회 표창

▷ 대한임상검사정보학회

협회장 공로패

▷ (재)서울의과학연구소 전무 김용우
▷ 감염관리위원회 위원 강혜숙
▷ (前)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장 박대수

협회장 특별상

▷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단장 황석연
▷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조인숙

감사패

▷ 지멘스헬시니어스
▷ SD바이오센서

제50회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전국수석

▷ 김명희(대구보건대학교)
▷ 윤여경(연세대학교)
▷ 서가은(신성대학교)

집행부 근무표창 : 상임이사회 출석상위자 (22년 12회 개최 중 11회이상 참석자)

구분	성명	협회 직위	구분	성명	협회 직위
1	임대진	총무이사	10	송기선	국제이사
2	하성일	재무이사	11	지우현	섭외이사
3	엄동욱	정무이사	12	정지은	총무부장
4	이상희	학술이사	13	최정수	정무부장
5	황상노	교육이사	14	강부석	학술부장
6	김 철	공보이사	15	임효경	교육부장
7	권민석	정보통신이사	16	남기준	정보통신부장
8	김동현	법제이사	17	박준범	정보통신부장
9	김희성	보험이사			

직원 근무표창

▷ 중앙회 사무국 행정지원국 팀장 최현지
▷ 중앙회 사무국 경영사업국 팀장 오혜영
▷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사무장 권은혜

협회장 표창

소속시도	성명	근무처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민영훈	(재)씨젠의료재단
	문병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원재희	연세암병원
	정태한	강남 차병원
	조문희	상계가정의원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문성경	삼성서울병원
	유희침	(재)한국의학연구소 부산센터
	박정석	삼광의료재단 에스엘대진의원
	신명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이용석	광주기독병원
대전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이옥현	대전선병원
	정소량	울산대학교병원
	고인철	분당차병원
	송호림	경인지방병무청
	박지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강원도 임상병리사회	김수현	명주병원
	정주진	평창군 보건의료원
	손재형	충북대학교병원
	전재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김양진	우석대부속 전주한방병원
충청북도 임상병리사회	김홍주	순천성가롤로병원
	배진호	문경제일병원
	공유진	갈등장유병원
	김봉찬	제주대학교병원
	김명희	국가고시 전국수석(서가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우수지회 표창(충북도회)



우수지회 표창(전남도회)



공로패(서울의과학연구소 김용우 전무)



특별상(황석연 단장)



국가고시 전국수석(서가은)



자랑스러운 임상병리사상 (안용호 자문위원)



우수지회 표창(인천시회)



공로패(감염관리위원회 강혜숙위원)



협회장 감사패(지멘스헬시니어스)



국가고시 전국수석(김명희)



집행부표창



최우수지회 표창(인천시회)



최우수분과학회 표창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공로패(감염관리위원회 강혜숙위원)



협회장 감사패(지멘스헬시니어스)



국가고시 전국수석(윤여경)



우수회원 표창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176차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장인호, 이하 협회)는 지난 2023년 2월 11일(토) 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176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정기이사회에는 총원 50명중 39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장인호 회장은 개회선언과 함께 “3년간 화상으로 대의원총회를 하다가 이번에는 전면 대면 회의로 진행했다. 임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제176차 정기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 △총무부 2022년도 시도분과 행정지도감사 결과보고, 2023년 제61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일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서울의과학연구소 업무협약식 진행, 중앙중주민센터 통한 불우이웃돕기, 종합학술대회 개최지 평가 답사 진행 및 결과보고, 2022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기감사 진행, 제177차 정기이사회 및 2023년 행정실무워크숍 일정보고 △재무부 교부금 지급, 2023년 하나카드 협회비 일괄결제 진행, 2022 회계연도 결산 외부감사, 2022년 경남도회 및 부산시회 재무 특별감사 실시, IFBLS2022 분과학회 지원금 지급, IFBLS2022 시도지회 지원금 지급, 2022년 온라인 보수교육 교부금 지급, 2023년 온라인 보수교육 교부금 분할 지급 예정, 2022년 부가세 납부 △정무부 간호법안 저지 국회 앞 1인시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간호단독법 철폐촉구 화요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 한의사 초음파 판결 규탄, 생리검사학회 진폐교육 관련 회의, 간호법 제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기획위원회 회의 △학술부 대한임상병리사학회지 54-4호(12월호)논문편집교정심사내역 보고, 제61회 종합학술대회 기획 보고, 2022년도 연구,정책과제 현황 보고, 2023년도 연구,정책과제 진행 스케줄 정리, 해외학회 초청연자 선정 보고, 2023년도 제2차 학술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보고 △교육부 면허신고 현황, 2023년 보수교육계획

서 및 피교육자 경비 부담액 산출내역 보건복지부 제출, 2023년 온라인 보수교육 오픈, 외부기관 보수교육 이수 현황, 교육부 회의 개최, 2022년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보수교육 평점 인정,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제1차 운영위원회,이사회 개최 △공공보부 제67회 전국여성대회 참석, 캄트특공대 유튜브 촬영, 대한의사협회 업무협약체결식 언론 보도, 협회장 신년사 촬영 △정보통신부 대구시회 정회원 자료공유의 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통합 홈페이지 기능개발 요청 취합, SSL 인증서 갱신,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23년 진폐정도관리 교육 협조 요청 수신, 시도분과 컨텐츠 페이지 수정 기능 개선 △국제부 2023년 해외학회 안내, AAMLS 관련 안내 △중소병의원부 정보통신부와 업무협조, “정확한 공단검진검사를 위한 공익신고” TF팀 결과보고, 실무자료개발에 대해서 보고했다. 이어진 안건심의, 의결에서는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선출의 건과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2023년 협회관 재건축사업 예산 증액의 건과 2022년도 결산, 2023년도 예산 보고를 진행했다. 안건은 1개가 부결되었으며 외에 안건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뒤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중양회 동정

- 2월 1일** 포상심의위원회
- 2월 2일** KAMT-JAMT 화상회의 제482차 상임이사회
- 2월 7일** 보수교육위원회, 교육부, 정보통신부 회의
- 2월 8일** 응급구조사법 대응 관련 회의
- 2월 9일** 간호법 반대 집회
- 한일교류공로자회 회의
-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사무국 회의
-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 2월 10일** 제2차 학술발전위원회 회의
- 2월 11일** 제176차 정기이사회
- 2월 16일** KAMT - JAMT 화상회의
- 간호법 제정 저지 총결기대회 준비 회의
- 2월 17일**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 간담회
- 2월 18일** 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정책과제세미나 및 2차 사무국 회의
- 2월 20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회의
- 회장단 회의
- 2월 21일** 조정훈 의원 간담회
-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기획위원회 회의
- 2월 22일** 총회의장단회의
-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사무국 화상회의
- 2월 25일** 제61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공익신고 TF 회의
- 2월 26일** 간호법 제정 저지 총결기대회
- 2월 27일** 간호법 제정 저지 1인 시위(김대중 공보부회장) 제2차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장인호 협회장 동정

- 2월 2일** 제482차 상임이사회 참석
- 2월 3일**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협회 대의원총회 참석
- 2월 4일**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협회 대의원총회 참석
- 2월 8일** 응급구조사법 대응 관련 회의
- 2월 9일** 간호법 반대 집회 참석
- 한일교류공로자회 회의
- 2월 11일** 제176차 정기이사회 참석
- 2월 13일**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 참석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1차 예결산소위원회 참석
- 2월 14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회의 참석
- 2월 15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기이사회 참석
- 2월 16일** 간호법 제정 저지 총결기대회 준비 회의 참석
- 2월 17일**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 간담회
- 2월 18일**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정책과제세미나 참석
- 2월 20일** 회장단 회의 참석
- 2월 21일** 조정훈 의원 간담회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기이사회 참석
- 2월 22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술회의 참석
- 총회의장단 회의 참석
- 대의원총회 준비회의 참석
- 2월 23일**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회의 참석
- 2월 24일** 임상생리검사학회 안과검사교육프로그램 수료식 참석
- 2월 25일**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 2월 26일** 간호법 제정 저지 총결기대회 참석
- 2월 27일** 의료가사단체총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제갈석)는 지난 2월 4일(토) 마산대학교에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의원총회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현재 임상병리학과에 교육기부사업을 하고 있는 세빛메디칼 문병수 대표를 경남도회 고문으로 위촉하는 위촉장 수여식과 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제갈석 회장은 오랜만에 진행되는 대면 대의원총회에 그간 코로나 19 방역현장에서 고생한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격려사를 진행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전자 대의원총회 회의록 승인과 2022년 회무 결산보고 및 감사결과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2022년 경남도회 사업실적에 대해 채혈료 산정을 위한 TF위원회 위원 활동, 논문 작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며, 스마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채혈, 국가건강검진사업, 삼상-경동맥 초음파검사, 청력, 폐기능, 안저 검사 등 4개의 분야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해 회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제갈석 회장은 “2023년도에도 경남도회는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 및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중소병의원 회원들을 위한 임금가이드라인 책정과 업권수호를 위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주력해 임상병리사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3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협회장상** 박진영(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경남도회장상** 양재윤(고려정형외과병원)
- 우수회원상** 정유진 (진주한일병원), 민선희(창원파티마병원), 안다혜(장유산부인과의원)
- 경남도지사 표창** 박성배(마산대학교), 정진희(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 국회의원상** 최숙경(제일병원) 송정훈(마산의료원)
- 김다해(창원경상대학교병원), 김태훈(삼천포제일병원), 김미라(한국건강관리협회), 박규환(삼성창원병원), 이윤정(구트병원), 안난경(삼일정풍병원), 이종욱(한국건강관리협회), 주민규(삼성창원병원), 금희주(밀양윤병원), 임지영(삼성창원병원), 이영근(진주제일병원), 박종권(한일병원), 한만식(경상대학교병원), 강경화(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계민(삼성창원병원), 김가영(창원파티마병원), 전병욱(동마산병원)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는 지난 2월 4일(토) 구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의원총회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임상병리사 윤리강령 낭독, 내·외빈소개, 개회사, 축사, 수상식을 진행했다. 조대현 회장은 축사를 통해 2022년 협회발전을 위해 애써준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2부 대의원총회에서는 41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성원되었으며 전 회의록 승인이 진행됐다. 이어 의안 채택 및 심의시간에서 2022년 회무 및 경과보고,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이 진행됐다. 경북도회는 2022년 생명나눔 헌혈릴레이 업무협약에 따라 홍보활동을 진행했으며, 정회원 배가운동, 지역분회 지원, 의료가사연합회, 유관기관 교류, IFBLS2022 홍보활동, 임상병리학과 개설대학교와 학술 교류, 부서별 멘토단 시범운영, 중소병의원발전위원회 참여, 회원 자긍심 고취 활동을 진행하며 회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한 2022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사업계획으로는 △행정부문- 생명나눔 헌혈릴레이 지속, 지역분회 활성화(미방문 분회 순회), 유관기관 교류 활성화지속, 단합대회 기획 △학술부문- 대면보수교육 시행, 보건의료인 역량강화교육 활동, 지역대학교와 학술적 교류활동 진행 △사업부문- 봉사단 결성 및 운영, 지역여성단체 협의회와 교류 활동, 중소병의원 회원 지원 활동을 예정중에 있다.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협회장상** 이미경 (포항성모병원)
- 경북의료기사총연합회회장상** 김연임(좋은선린병원)
- 공로상** 김호석(순천항구미병원)
- 2022년 자랑스러운 경북임상병리사상** 박남근(구미차병원)
- 경북도회장상** 손세원(한국수력원자력병원), 홍혜진(의료법인성산의료재단 새빛병원), 배성조(구미차병원), 권경애(홍희선산부인과), 서은경(좋은선린병원), 남정임(김종연내과의원)
- 감사패 수상** 정재엽(씨젠의료재단)
-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장상** 장윤석(안동성소병원)
- 최우수분회 포상** 포항1분회
- 우수분회 포상** 경주분회, 안동분회

축하합니다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
충청남도 체육회와 함께 '건강' 챌린지 진행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이상훈)가 4월 달(4월 1일부터 31일까지) 충청남도 체육회와 함께 건강챌린지를 진행한다. 건강챌린지는 코로나 엔데믹을 맞이해 그간 병원 업무로 고생한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 회원들의 야외활동 지원과 심혈관 및 만성질환예방을 위해 준비한 캠페인이다. 참여 대상은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 정,준회원이며(참여비밀번호는 충청남도임상병리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참여방법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애플)을 통해 '힘센 충남 건강' 어플을 다운로드 받은 후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프로필관리에서 소속을 입력하면 된다. 일정은 4월 1일(토)부터 4월 31일(일)이며 해당 기간 내에 20만보 이상(부정 걸음 사용자 상품 미지급)을 달성하면 된다.



대한임상검사과학회

대한임상검사과학회
제1회 춘계워크숍 개최안내

대한임상검사과학회(회장 구본경)가 4월 8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1회 춘계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생명과학 연구 및 진단 검사기 개발을 주제로 진행 될 예정이며, 각 분야의 대표 및 실무자가 연자로 나와 발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세 안내는 아래와 같다.

대한임상검사과학회 2023년 제1회 춘계워크숍 개최 안내

1. 일 시 : 2023. 04. 08 (토) 13:00 ~ 17:00
2. 장 소 :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정로 26)
3. 주 제 : 생명과학 연구 및 진단검사기 개발
4. 사전등록 : 2023년 3월 13일 ~ 4월 4일 23시 59분
5. 등 록 비 : 회원 2평점(2만원), 비회원(4만원), 학생(1만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kamt.or.kr)에서 등록 가능
6. 식 순 :

시 간	
12:00 ~ 13:00	등록
13:00 ~ 13:10	국민의례
13:10 ~ 13:15	개회
13:10 ~ 13:20	축사
13:20 ~ 14:00	윤현규 대표 ((주) 아토폴렉스)
14:00 ~ 14:40	이선우 대표 ((주) 체노믹스웬스)
14:40 ~ 15:00	휴식
15:00 ~ 15:40	박선구 대표 ((주) 선바이오메드)
15:40 ~ 16:20	임건일 연구소장 ((주) 루카스바이오)
16:20	폐회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춘계워크숍 및 평의원회의 개최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회장 차경호)는 지난 2월18일부터 19일까지 충청북도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2023년도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춘계워크숍 및 정기 평의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진행된 춘계워크숍은 차경호 학회장과 학회 집행부, 전직 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국가고시 출제 경향과 발전방향', '검사 논문의 최신 경향', '학회 밖의 인사이트 찾기'를 주제로 발표됐고 이어 2023년도 정기평의원회가 진행됐다.

연제로는 △ 국가고시 임상화학 필기 및 실기 분야의 출제 경향 및 발전 방향 △ 학회지 및 학회 연재의 최신 경향 △ 수탁검사의 개인정보보호가 발표 되었으며 특별 연제로 △ K-배터리 △ 인생설계가 발표됐다.

이 날 발표를 진행한 연제들은 시간제한을 두지않고 진행함으로써 질의 응답 시간은 충분히 가지며 심도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이 후 정기평의원회에서는 학회사 및 정도관리 교재 편찬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의결되었으며 협회 회관 건립 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을에서 제안된 소정의 건립 지원금 지원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1박 2일로 진행된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춘계워크숍 2일차에는 임원 및 평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학회 발전을 위한 학술 활동 격려와 소통과 화합을 약속하며 마무리됐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제정 저지 총궐기대회 함께해

-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약소 직역 존중하라!"



임상병리사·의사·간호조무사 등이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거리 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로 넘겨진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외쳤다. 지난해 가을부터 점차 고조된 간호법 갈등이 급기야 가두 투쟁과 세 대결 양상으로 변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400만 회원들은 2월 26일 오후 2시 여의대로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안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모든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5만여 명의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 했다.

함께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다.

궐기대회의 시작은 전통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이 열었다. 여의대로에 모인 보건복지의료인들은 '보건의로 체계 붕괴 간호법안 폐기하라', '간호사만 특혜주는 간호사법 폐기하라', '간호사법 강행처리 민주당을 규탄한다'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이어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무대위에 올라 대회를 발표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의료가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원 팀이 되어,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음을 짚으며 간호법이 이러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인 법안임을 꼬집었다.

장인호 회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보장받고, 올바른 의료제도의 근간을 바로세울 수 있으려면 그 분야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부디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각성하라! 원점부터 재논의를 위한 리셋 버튼을 작동시키길 국회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궐기대회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가두행렬로 마무리됐다. 여의대로에서 시작된 '투쟁 행렬'은 더불어민주당 앞, 국회 앞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일제히 '간호법안 강행처리 국민건강 위협한다', '간호법안 강행처리 민주당을 규탄한다', '보건의료인 생존권 박탈 간호법안 폐기하라', '의료인면허 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 구호를 외치며 뜨거운 함성을 토해냈다.

간호법 제정안 논란의 핵심은 이 법이 생기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지휘 밖의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의료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년 전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 등의 발의로 법안이 제출됐을 때 간호사 업무 규정의 의료법에 들어 있는 '진료의 보조' 대신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가 됐기 때문이었다. 의사협회 등은 간호사가 독자적 방문 처치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의료 체계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상병리사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자신들의 영역을 간호사들이 침범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현재도 '진료보조'를 명목으로 체혈, 심전도, 심장초음파, 폐기능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은 더욱 빠르게 잠식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마냥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이날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최은창 전 라남도의사회장, 조영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전지부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대표해 식발을 진행하며 간호법 제정을 규탄하는 결연한 각오를 보였다. 식발을 마친 장인호 협회장은 '간호법안 강행처리, 국민 건강 위협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2023년! 감상평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가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2분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1) 접수기한 : 2023년 3월 27일(월) 18:00까지 전송
- 2) 접수방법 :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면허번호, 상품을 받으실 주소

[제481호 당첨자]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심전도 검사' 시가 높고 파킨슨병 찾아냈다

● **편미혜 44695** : 성북구에 위치한 병원에 근무하는 회원입니다. 심전도 이상 소견 발생 시 협진 기관인 고려대 안암병원에 진료의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만으로 파킨슨병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인공지능이 개발했다는 소식을 병리협보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심전도의 원시 파형 데이터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고려대 의료원의 정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기에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도 함께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병원 검사결과 데이터에서도 조기 진단법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는 사실에 보다 더 정확한 심전도 검사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파킨슨병 진단이 쉽지 않은 탓에 많은 환자가 이미 병세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곤 했는데 해당 기사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후를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심전도 검사' 시가 높고 파킨슨병 찾아냈다

● **정환두 46360** : 현재 병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큰 병원에서 중소병원으로 갈수록 진단검사업무와 생리검사는 분업화 되지 못한 실태입니다. 전문성은 더욱더 향상되고 신뢰받는 검사를 요구 하지만 현실은 아직 인력충원의 정당성을 이해시키지 못함이 그 이유입니다. 현 직장에서도 검사 이외에 심전도, 폐활량측정 등 생리검사를 겸하여 시간적인 업무에 쫓기면서 새로운 지식습득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전도검사가 파킨슨병이라는 병의 진단에도 시의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효율적이고 진보적인 일보에 작지만 큰 기쁨을 느끼고 함께 나아감을 느꼈습니다.

회원
동정



△ 남희준 회원
2023년 1월 9일
부산의료원 실장 발령

Atellica® CH Enzymatic HbA1c (A1c_E)

지멘스 헬시니어스(주)의 자동화 생화학 장비인 Atellica® CH 장비로 HbA1c (A1c_E) 검사 가능

Atellica® Solution의 폭넓은 당뇨검사 패널

- Enzymatic Hemoglobin A1c
- Glucose
- Fructosamine
- Microalbumin
- C-Peptide
- Insulin



Atellica® CH A1c_E 검사의 특징

- 2018년 제품 출시 이후 NGSP (National Glycohemoglobin Standardization Program, 미국 당화혈색소 표준화 프로그램) 2022년까지 매년 인증 획득
- 국내 질병관리청 주관 국가진단검시스템 품질평가사업 당화혈색소 2022년 프로그램 전 평가 영역 'Acceptable' 결과 획득
- IFCC표준 물질에 대한 소급성 확보



아텔리카 사용자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 주제 : 1. Atellica® CH Enzymatic HbA1c (A1c_E)
- 2. Atellica® SRS (Smart Remote Service) 원격지원 서비스

일시 : 3월 17일(금) 15:30 - 16:00

지멘스 헬시니어스에서 아텔리카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다 디지털화된 방법으로 전달하고자 '아텔리카 온라인 세미나'를 분기별로 진행합니다.

참여방법

아텔리카 온라인 세미나는 팀즈 (Teams) 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우측 QR code를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며, 또는 등록 담당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참석 방법에 대하여 안내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진단키트 전문기업

주 | 코젠바이오텍

K-방역, K-바이오 그 시작점에 항상 코젠바이오텍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진단키트

- ✓ WHO·CDC 지정 우려·관심 변이 스크리닝
- ✓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식별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목허가 · ISO13485 · CE IVD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부산경남검사센터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광주호남검사센터



대구경북검사센터



대전충청검사센터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최고의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질병 진단과 예방에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고,
 국내 최대의 검사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 및 지역 검사센터에서
 신속한 진단 결과를 제공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최다 검사



코로나19 검사 시스템 집중 조명



지역사회 검체 역량 강화 기여



씨젠의료재단본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20
 부산경남검사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대구경북검사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광주호남검사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00
 대전충청검사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38

검사의뢰
 학술문의 **1566-6500**
www.segenemical.com